

# 한글

號三第·卷二第  
【號月六】  
1934

一 部 一  
錢 五 金 一  
錢 十 三 金 六  
錢 五 十 五 金 一

發行所  
九二一洞花府城京  
部版出會學語鮮朝  
番六三〇一城京替振

## 동일어를 존중하는 아량을 가지자

작년 시월 스무아흐렛날 (한글 기념일)에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이 발표된 뒤로, 이에 대한 반향을 우리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즉 첫째로는 신문 잡지 기타 서적들이 늘 갈만한 형태로 이 새 철자법에 의하여 출판되어, 벌써 이 새 철자에 의지한 문법책까지 출현되었다. 그리하여 그 통일안과 문법책이 불리 같이 팔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로는 조선어 연구에 대하여 비전문가적 지위에 있는이 몇분이 통일안의 어느 한 귀퉁이를 만을 피집어내어 가지고 모순이니 불편이니 하는 막연한그리고 대단히 거친 비평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

그 인물들을 살펴보니, 통일안에 찬성하는 이는 과학에 이해가 있고 통일안 성질과 의의를 잘 깨닫는 신진기예의 장년 청년이 많은 반면에, 이것을 반대하는분들은 고식, 퇴영의 환멸을 스스로 줄기려는 노쇠계급이 아니면 자기의 기성 출판물의 철자법과 다름을 두려워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자류의 몇몇 사람들뿐이다. 그리고 가장 가증한 일은 어느 화설이나 단체와 대립적의식을 고조하여 은연히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는 야심을 가진이도 없지 않은 일이다. 조선어학회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것은 학회 자신도 그 필요를 통절히 느끼었지마는, 실상은 일반 사회의 편달과 부락을 받아가지고 성취한것이다. 이 철자 통일안이나 사전 편찬이나 그 밖에 몇가지 일을 사회 지명인사들의 회합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을 받았을뿐 아니라, 통일안 작성 당시에도 여러가지 색다른 주장을 가진이를 총망라하여 본래 조선어 학회원이 아니던분으로써 철자 위원에 선거한 일이 있었는데, 모쪼록 이 전 민족적 합작에 단연 거절하여 고립을 스스로 줄기는이도 있었다. 이와 같은 동기와 여러 위원의 피땀을 쏟아 담아논 이 통일안

은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방면의 지식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야여러가지 모순을 조화해놓은것이 다. 누구든지 반대하려거든 한꼬트머리만을 보지 말고 그 전체

## 「아이 수쿠리」나 「아이스크림」이나

요새 거리에 빙수집이 한집 두집씩 생기고 얼음사랑 장사가 늘어가는것을 보니, 벌써 여름철이 이르렀음을 알겠다.

「아이 수쿠리! 아이 수쿠리!」 이것은 여름철에 길거리에서 듣고 다니다, 아이들의 손에 있는 풍등을 말리려고 쫓아다니는 소리다. 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처음 듣는이로는 의태어인 것이 아닐까? 아이 수쿠리! 인가 보다 하겠지마는, 조금이라도 영어의 상식이 있다면 이것을 들으면 웃음위 요절을 할것이다. 알고보면, 그것이 「아이 수쿠리」가 아니요 「아이스크림」인 ice cream의 외래어(外來語)인 것이다. 더 자세히 따져보면, 아이스(ice)가 얼음(氷)이란 말이오, 크림(cream)이 범벅(또 乳脂)이란 말인데, 이 두개의 말이 합하여 「아이스크림」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갖

를 냉정히 통찰하라. 그리고 이안보다 더 나은 체계 있는 안을 내어놓으라.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안에 승복할 아량을 준비하고 있다. (이희승)

다가 그들이 「아이 수쿠리」라 하여 윙윙 말의 소리를 변해놓은 것이다. 우리는 외래어를 많이 쓴다. 불철적 문화가 발달됨을 따라 나날이 새로운 물건이 나고, 새로운 물건이 남을 따라 외래어의 수입도 자꾸 늘어간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연히 외래어를 많이 쓰지 아니할수 없게 된다. 우리가 외래어를 쓸 때에는 그어음(語音)의 우리의 어음과 같지 아니한바에 꼭 그 원음(原音)대로 하잘것까지는 없을지라도, 될수 있는대로 그 원음에서 과히 틀리지 않는 정도도 하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요새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램프(lamp)를 램포도, 검(cup)을 고배라, 풋볼(foot ball)을 후도보투도, 라디오(radio)를 라지우로, 노리까와(ノリカヘ)를 노리깨이로 하는것은 매우 잘못이다. 마땅히 우리와 같이 할것이다. 이 몇마디는 예와 같이 지나지 아니하나, 더 조사하여 외래어를 다 모아서 일후의 다시 한번 말하기로 하고 그만둔다.

### 次 目

- 통일안을 존중할 아량을 가지자.....李熙昇 (1)
- 「아이 수쿠리」나 「아이스크림」이나.....(2)
- 한글 통일과 보급에 대한 차례 여러분의 말씀.....(4)
- 한글 바루잡아 쓰기의 의의.....宋基柱 (6)
- 한글 통일과 우리.....朴魯哲 (8)
- 새글(新) 연구.....(8)
- 「옛이야기」 중국 사신과 수염장이 열감.....(10)
- 「명인일화」 두 형제와 은함용체.....(10)
- 의 말 찾기.....沈宜麟 (11)
- 朝鮮語讀本 卷一 指導例.....(11)
- 중등 조선말본 질잡이.....崔鉉培 (12)
- 한글 신문.....(14)
- 부질없는 수작.....(14)
- 京城鐵路의 目九一番地.....(1)

한 글 의 통 일 과 보 급

의견교환과

사범 강습이로

宣川 信聖學校長 張 利 郁

세계에 제일 좋은 글을 가지고도 그 진가(眞價)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혼란하게 엮여온 우리들의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말미암아 그 통일을 보게 된 것은 천 민족적으로 크게 기뻐할바입니다. 우리는 하루바삐 이 통일안의 보급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안은 적어도 사제 권위자 여러분이 삼개년의 시일과 백여회의 회의를 거듭하여 만들어낸것인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신용하지 않을수 없으나, 조선어학회에서 이를 내어놓으면서 머리말에 쓴것과 같이 불비한 점이 아주 없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안을 찬성하는이도 다소로 순과 의혹이 있을것은 나의 경험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비평과 질문은 안전한 통일을 피하는데 없지 못할것이라면, 얼마든지 반대학설을 허용(許容)하여 학구적 태도(學究的態度)도 이론을 전개할것입니다. 옳고 그른것은 보는 사람이 판단할리니까요.

그리고 지방 농촌에까지 빨리 보급시킴도 급무이지만, 그보다도 먼저 지식계급층의 통일이 더 급한줄 압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급시키는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방침이 있겠지만, 우선 적당한 때와 장소를 따라 사범강습 같은것을 개최함이 순서적으로 보아 효과가 많을줄 생각합니다.

문자의 통일안과

우리의 수치이다

定州 五山高等普通學校長 朱 基 瑤

우리글이 오늘날과 같이 혼란한상태에 빠져 있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다란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회에서 발표한 통일안이 일반 사회의 환영을 받고 넓이 선전되고 있으니, 멀리 않은 날에 모두 그 길로 쫓아 한탕어리가 될것을 믿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있는 우리들은 학생들을 동원시켜 누구나 여름 방학에는 농촌의 무식 대중을 위하여 브나로드운동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철자법 교수에 힘을 쓰고 있을뿐 아니라, 해마다 발행하는 교우회보 같은것은 꼭 통일안대로하는 셈이올시다.

중심기관의 노력과

보조기관의 활동이로

大邱 啓聖學校 教務主任 孫 癸 述

나는 한글에 대하여 문외인이니까 이렇다할 의견도 없읍니다마는, 대체도 우리말의 혼란하기 짝이 없다는것만은 항상 느껴온바이올시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한글의 정리와 보급에 대한 일반 민중의 관심이 날로 더하여 가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서 통일되리라 믿읍니다마는, 중심기관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할줄 압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방면의 연구가 몹시신이가 계시니까 더 말할것 없읍니다마는, 앞

으로는 더욱 우리글의 통일을 위한 보조기관으로서의 활동에 힘써드립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대성으로

東星商業學校長 朴 準 鎬

우리글이 여러가지 혼란하게 엮여온것을 귀회가 주동이 되어 한길로 통일하자는것은 참 반가운 일이올시다. 그러나 조선어를 연구하신다는분들 중에는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무슨 일든지 자기를 희생하여 대성(大成)으로 나아가야겠읍니다.

그리고 우리글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강습회와 계몽대(啓蒙隊) 운동 같은것은 근본적 문케이겠고, 개인적으로는 일상의 서신왕복에도 한글을 쓰지 말고 한글을 썼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는 다른 중등 학교와 성질이 다른 관계도 있겠지만, 조선어 시간은 주장 서간문등을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사범양성의 필연

協成實業學校長 金 麗 植

말과 글은 한 민족이 서로 뜻을 통하는 공동 약속이므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너무 어지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말을 여러 전문가 의원들이 여러 해동안 노력하여 통일안을 내신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미 통일안이 났으니까, 하루바삐 보급하여야 되겠는데, 그 방법의 일 반 출판물을 그 안의 쫓아 내도록 힘써야 되겠는데, 문필의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한글

승

말

의

분

리

여

계

각

(개

통일안에 익숙하도록 공부하여야 되겠으니, 강습회를 자주 열어서 주는 것이 좋겠고, 또 중학 이상의 학생들을 모아서 사범을 양성하여 방학때를 타서 일반에게 보급강습회를 시키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우리 협성실업학교에서는 그전부터 한글을 배우고 쓰려고 애를 썼는데, 통일안이 난 뒤에는 물론 그대로 좇아 행하고 있습니다.

### 실제교수에서

#### 통일이 나쁘다

平壤崇仁商業學校長 金恒福

우리들의 마음법을 한길로 통일하여 쓰야겠다는 것을 느끼지는 이미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몇해전 뜻있는 이들이 모여 한글연구회를 조직하였는데, 나도 그 회원의 한사람이 되어 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 통일의 대한 나의 의견은 다만 한 학교의 교장으로서는 막연한 찬성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실례로 교수에 당하여보니까 얼마나 통렬히 느끼지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평양에서는 연전에 어떤 안(案)을 만들어 썼습니다만, 지금은 조선어학회로서 통일안이 발표되었으니 우리는 이제로부터 그 안에 좇으려 합니다. 끝으로 하나 바라는 것은 우리 평양에는 교육기관이 많은 것만큼, 한글 연구대가 한분의와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 면면

#### 보급기관을 두자

京城實業專修學校長 金周益

언제나 있어서는 각 지방에 따라 어느 정도

도까지 다르고 하겠지만, 문자만은 반드시 하나 통일되어야 하겠는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너무도 혼란한 가운데 있으니, 하루 바빠 통일하여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의 넉리 보급하는데 좀더 힘있는 계획이 진행되어야 할 줄 압니다. 종래와 같이 한글 강습회 개최라든가 브나로드 운동이라든가 모두 좋은 방법의 아님은 아니나, 한결음 나가서 정말 영구 완전한 우리들 보급 기관이 면면 촌촌에 설치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각 방면의 경제적 후원이 필요하고, 따라서 교도자 양성에도 더욱 유의하여야 될 줄 압니다. 끝으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선어 시간 주창 신철자법의 연습과 문법에 대한 것을 교수하여 갑니다.

### 초등학교의

#### 교과서로부터

京城女子商業學校長 李鎔珪

불통일하게 쓰이고 있는 우리들을 통일하여야겠다는 것은 누구나 한가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통일하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의 교과서부터 통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는데, 이라고 보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되겠지요. 하여간 하루바빠 통일하여야겠는데, 누구보다도 조선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이들이 많이 노력하여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학교의 조선어 교수의 대하여서는 가르치는 선생에 따라 방침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교과서에 의지합니다.

### 상설기관이 있었으면

大東商業學校長 金萬壽

우리들의 한길로 통일하여야겠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육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더 한층 철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조선어 연구가 중에 주장을 달리하는 이들이 있으니, 어느 한편에서 양보하여 한대로 통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수대중의 세력에 좇아 규정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잘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한글강습회와 문자보급반 같은 것의 상설기관을 두고 노력하였으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첫째는 종교서적

#### 둘째는 교과서로서

京城女子美術學校長 李重華

문의인인 나로서 무엇이든 하기 어렵습니다. 다하는, 문자 통일이야 물론 하여야겠지요. 그리하여 이것을 넓히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첫째로 종교 단체에서 간행하는 서적을 통일된 철자법으로 고칠 것이요, 둘째로는 보통학교와 중등학교의 교과서를 고쳐야겠으며, 그 다음엔 신문 잡지를 한가지 철자법으로 고쳐 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교수 시간의 반 이상이 기미과목인 까닭에 조선어엔 큰 효과를 주지 못 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 한글잡아 힘익



6818077

(화) (2)

그런대로 쓰는것의 잘못을 바꾸잡아 쓰기를 익히는것이 우리글을 통일하는데에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난을 두는것이다. 이것을 익을 때에 그 결에 바꾸잡아 쓴것을 깊이 주의하여 보기를 바란다.

록음속에서 네할가틀씩 벌이고 나무 가지가 흔들흔들할만큼 코를 골면서 자고 잇난것을 맛났습니다. 염소들은 압호로 갖다 뒤로 갖다 하면서 자난 누대를 살펴보니까, 뱃속에서 무엇이 꾸를 꾸를 하기도 하며 알이 위로 왔다갔다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아, 고맙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늙은 염소난 이리케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소리난 뱃속에서 돌아돌고서 급히 짐으로 도라왔습니다.

가위와 바늘과 실을 가지고 다시 두 대한대로 와서, 털이 수북한 누대의 옷을 가위로 버렸습니다. 조고마케 버히자마자, 염소 새끼 한마리가 대가리를 쏘 나며 미렸습니다. 그것을 본 늙은 염소난 엷지 조흔지 신이 나서 기뻐 하였습니다.

스나, 그래도 잘못하다가 누대란놈의 잠을 깨면 안되겠스닛가, 밋칠듯한 깃털을 억지로 참고서 누대의 옷을 조금 더 버렸습니다.

그러자 누가 새끼들이 한놈 두놈 꾸역 꾸역 솟아 커 나와서, 쌍쌍쌍 쌍쌍 쌍쌍 아다니었습니다. 새끼 여섯마리난 모다 조고만 상척도 업고 멀칭하였습니다.

누대가 염소 새끼를 먹을 때에 너무 급해서 산채로 등으로 삼켜버렸기 써분입니다. 그래도 누대난 아조 잠에 골아 떨어켜서 이리저를 도모지 몰랐습니다. 늙은 염소와 새끼들이 그새에 얼마나 깃뻗겼습니까. 어린 염소들은 어머니한테 달너드려서 씨고 안기고 하는놈도 잇고, 그 근처로 쌍쌍쌍 쌍쌍 쌍쌍 쌍쌍 이난놈도 잇었습니다. 그래 조라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늙은 염소난 그것을 만류하고 이리케 말하였습니다. 『얼른 커기가서

굽다란 돌맹이를 가 커 오나라. 그것을 커놈의 뱃속에다 커박아 주자. 커놈의 잠이 깨기 전에 널굽마리 새끼난 그 말대로 살니살니 돌을 가 커왔습니다.

그돌을 누대가 자난동안에 그 뱃속에 집어넣고, 누대가 잠이 깨어나 안이 깨었나 갖가히 가보니까, 아죽도 누대란 높은 정신이 업시 자고만 잇었습니다.

그때에 늙은 염소난 얼는 그 쪽안 구멍을 바늘로 간쪽갓치 꿰매버렸습니다. 얼마 잇다가 이윽히 누대는 잠이 깨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 배가 부르기는 앓가 잠들기 천과 매한가지인데, 데일 목이 말라서 견딜수 업었습니다.

다. 물을 먹으라고 목어운 몸을 간신히 움겨서 거러가난대, 이리 빗들 커리 빗들 빗들거름을 치면서 벳볼노 가자넷가 누대 뱃속에서는 돌맹이가 이쪽으로 대글대글, 커쪽으로 대글대글 하였습니다.

그바람에 염구리난 미여질듯하고, 배창 자난 쪼켜질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넷가, 그러라고 안이 갈수난 업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업혀졌다 잡바졌다 하였습니다. 씹는 비오듯하야 온몸이 흥작 쪼겼습니다. 그래도 죽지 안코 엷터케 해치라도 사라가라고 멀고나 먼 냇물만 바라보고 죽을경을 케 스사로 찻습니다.

그새에 간신히 정신을 가다드며 아모리 생각하야보나, 케 뱃속에 드러잇난것이 그 무엇인지 의심스려왔습니다. 그래 누대난 쉬인 목소래를 힘껏 질너가며, 다음 갖치 노래를 하였습니다.

테클테클 등글떠 달갈달갈 울니며 염구리를 썰은난것이 그 무엇일고? 조고만 염소난 안인가보다 커다란 돌맹이나 그 안인지?

아이구 압혀, 아이구 압혀, 내 배가 압혀요 목은 말나요 하나님 맙소서

여보시오 하나님

죽을 때 죽을망정  
속이나 시원하게

물 한모음 줄소리

어찌어찌 었지엇지하야 우물 잇난 곳을 다다랏 습니다. 냇물까지 가자면 아즉도 머릿

으로 앞 뒤 생각 업시 늑대난 그 우

블락에까지 왔습시다. 목이 말나서 꼭

죽을 지경이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분

간할새가 업서서 거커 물이 먹고싶흔

바람에 들혀노코 우물턱에 업드려서 그

속으로 드러다 보았습시다. 보고 잇난등

안에 었지할수 업시 몸이 우물속으로

빠져버렸습

싸키버렸습니다.

이것을 수머서 었보고 잇든 었소들은

한거번에 달녀와서,

죽었네! 죽었네!

늑대가 죽었다!

늑대가 죽었다!

불에 싸켜 죽었다!

높은 소리로 이와 갖치 노래를 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서 그 우물 가로 출추

고 도라단이엿습니다. 높은 었소도 샅

기염소와 갖치 밋친듯이 깃버서 뛰엿 습니다. (웃)

### 신문 기사 교정

#### 東亞日報

### 學者들이 大同會合하여 震檀學會 組織

學術的權威를 確立

작 칠일 오후 오시 시내 「플라타

누」 다침에서 진단학회의 발기총회가

잇었다 한다. 이회는 조친과 밋인

근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로서 조

직되었으며, 학회의 명칭 「진단」이란

것은 조친을 진단이라고도 한 었비

문 가운데서 가커온것이라 한다. 학

자들이 대동적 회합은 이것이 처음

인만큼, 이같이 완전한 조직을 보기

까지에는 여러번의 준비 회합이 잇

엇을뿐 아니라, 또한 일반 사회에서

도 심중한 기대가 잇다 한다.

이 학회의 회원에 잇어서는 두부

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조친 문

화와 사업의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찬

조회원을 삼고, 직접 조친과 밋인

근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통상

력 연구를 위함과 밖으로 품의 잇는

학술 잡지를 발행하야, 내외인간에 학

술적 권위를 세우려는것이 중요한 목

적이란데, 이 잡지 발행은 기간으

로서 첫 호는 구월에 발행키로 되

엿고, 잡지 발행의 전 비용은 한성

도서주식회사에서 담당키로 되었다 한

다.

이제 그 발기인과 밋 일년간 상무

위원의 시명은 아래와 같다.

(가나다順) : 高裕燮, 金斗憲, 金庠基

金允經, 金台俊, 金孝敬, 李秉岐, 李丙薰

李相桓, 李瑄根, 李九宰, 李殷相, 李在郁

李熙昇, 文一平, 朴文圭, 白樂濬, 孫晉泰

宋錫夏, 申奭鎬, 禹浩喆, 趙潤濟, 崔鉉培

洪淳燦

常務委員 李九宰, 孫晉泰, 李熙昇,

金台俊, 趙潤濟

全京城 幼稚園

園遊會 今日 開幕

서울의 시내 시외 스를 네곳 유

치원의 이친여명의 어린이들과 사랑

하는 아들딸들 둔 삼만여명 가족들

이날 새벽에 몬지 티끌을 쏘려간

가는 빗발의 뒤를 이어, 가슴 조리

든 이 명절을 한곳 축복해 줄뻔이

엿다.

벌서 청각도 못되여 복악산을 울

리는 폭죽 소리를 군호삼아, 아츨아

지랑이가 사라지지 않은 정부대

술을 향하야, 내 딸 내 아들의 재

롱진 노리를 보기 위하야, 천차로도

보로 몰려드는 군중은 아홉시도 못

되어 넓은 장내를 채우고 마렸다.

이어서 산듯한 몸뿔시를 채린 선

생 아주머니들 손목에 잇달려서 커

마끔 청청다한 단장을 한 아가씨도

런님들이 재롱스럽게도 발길을 맛추

어 임상하게 되었다.

스를 네곳 유치원 어린이들이 각

각 정한 자리를 잡고나자, 열시 이

십분경에 이르러 멀리 남산을 넘어

채색으로 단장한 비행기가 꼬리에 오

색 「레임」을 길게 느린채, 신용욱 항

공사의 조종으로 대회장 상공에 나

라나, 손을 뻗치면 잡힐듯한 커공비



# 한글 타이머라이터의

## 유래와 발전

(1) 宋 基 柱

### 타이머라이터의 발명

우리 한글 타이머라이터의 생겨난 경륜을 말씀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이 타이머라이터의 발명하여온 과학자들간 단히 적어보면, 타이머라이터가 맨처음 발명되기는 지금으로부터 이백 이십년 전 一七一四년의 영국 사람 헨리 리·밀시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그 다음 一八二九년 미국사람 더블유·벤시가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였고, 一八三三년에 프랑크스람 포도킨씨도 이에 연구를 더하여 발명하였고, 또 一八四四년 미국인 러버씨가 더한층 새롭게 연구발명하였으나, 이 여러가지 타이머라이터는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잘 사용하지 못하거니와, 팔기까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一八七三년 미국 뉴욕 웨밍턴회사에

서 타이머라이터 제조 회사를 창설하여 비로소 세상에 팔리게 팔도록까지 발명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언더우드사란 큰 회사가 생겨 타이머라이터의 세계적 진출에까지 발달되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회사가 미국에서만 수삼십군대가 있다. 이와 같이 연구하고 발명하여온 타이머라이터의 쓰이는 곳은 주로 서신 왕복에 있고, 영업상에 많이 편리가 있는 것이다. 숙련되면 붓으로 써 무엇을 쓰는 것보다 빠르다는 것만 아니라, 부분(副本)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한 특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통 인쇄물과는 자체(字體)에 대하여서나 글자의 배열된 모양이 좀 다른 미적(美的) 취미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글자의 한자 한획이 손수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서로 되어 나온다는 것이 크다란 기계에서 잉크가 한꺼번에 쓸

이 지나오는 인쇄물과는 다른 무엇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글타이머라이터내력

그러면 그 다음 한글 타이머라이터의 발명하여온 내력을 엿보자.

우리 한글 타이머라이터가 세상에 처음 나오기는 지금으로부터 이십년 전에 이원익 이진일 두분의 힘으로 된 것인데, 기계는 옛날 웨밍턴회사의 오래된 모형으로 글자를 박아는 키의 수효가 여섯 여덟이었다. 그러나 글자의 모양이 아름답지 못하고, 자형이 불규칙하고 키의 수효가 많아서 시간의 경제도 되지 못하여 실제 사용에는 적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애쓴 공로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 언더우드 박사가 연구하여 기계를 만들었으나, 기계만이었고 키의 숫 부분은 영문의 대자만 쓰게 되고, 아래 부분은 우리의 글씨 쓰게 되었는데, 글자의 모양은 매우 불규칙하여 보기에 싫어스러워 도리어 처음에 이씨 두분이 만든 것보다도 완전하

# 한글 맞춤법 통일안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半千年 以來 整理 未되었던 우리글을 朝鮮語學會의 손에 빌어 비로소 맞춤법(綴字法)이 完成되었다. 全民族이 統一하게 쓸 표준글은 반드시 이것에 말미암을 것이다.

# 訓民正音原本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四百 八十年前 世宗大王께서 訓民正音을 頒布하시던 그 原本을 寫眞銅版으로 縮刷한 것이다. 우리글의 근본을 알고 키 하는이로는 아니 보면 안된다.

延禧專門學校教授 崔鉉培先生 著

# 중등조선말본

菊判 二百頁  
紙質 堅厚  
脊布 美本

定價 八十錢・送料 六錢

- ◇標準朝鮮語文法인제出現
- ◇最良의朝鮮語文法教科書
- ◇朝鮮語研究의基礎知識書
- ◇著者數十年專心研究要領

朝鮮語學會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基準한 文法이다. 무릇 朝鮮語의 뜻 있는이는 누구나든지 배우라 읽으라.

### ◎注文은

京城花洞一・二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로

振替京城壹〇參六番

지 못하여 우리 말을 자유로 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연구한 것을 세상에 내놓기는 一九二七年이었다. 본래 우리 한글은 로마자와 같이 가로 폴어서 쓰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인쇄하는데나 타이프라이터를 만드는데나 편리하여, 오늘날 영미각국이 사용하는 모든 기계를 이용하여 그들과 같이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오래전부터 김두봉씨 이하 여러 한글학자들도 이에 연구하여 보았으나, 기계로써 실제 사용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을 내

가 이에 청공 하였다고 하겠으나, 오래 동안 쉬나려오던 우리 습관을 버리고 갑작이 가로 쓴다는 것은 불편하다고 하여 일반에 잘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계 조직과 철자법의 과학적 이론엔 큰 성공을 하였다. 다만 이것이 넓이 퍼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습관을 속히 버리지 못한 탓이나, 앞날엔 오이러가 로 쓰는 타이프라이터가 더욱 진요하게 쓰일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후 장구한 시일을 두고 우리가 늘 쓰는 가로 쓰는 타이프라이터

를 발명하기에 힘을 썼지만 一九三二年 십이월 五일에 미국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회사의 손에서 한글 타이프라이터를 제작하여 세상에 발표하였는데, 기계의 모형은 대소 두종류로, 작은 것은 손에 들고 다니도록 하여 여행 상에도 편리하며, 큰 것은 사무실용으로 만든 것이다.

타이프라이터와 한글

이 타이프라이터의 글자 박이는 키의 수효는 사십이 개로서 우리글은 무엇이든지 쓸 수 있고, 또 수(數)를 표시하는 一三三四五六七八九〇 같은 것도 쓸 수 있게 되었다. 글자 박이는 키의 글자는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함을 주로 하였고, 옷 글자와 아랫 글자의 두가지 부호로 나누어 글자를 박일적마다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하여 신속하게 박일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사용하는 때 있어서는 심분동안 만 허비하면 깨달을 수 있고, 늦게 배우는 사람이라도 두어시간만 익히면 능히 알 수 있도록 편리하고 간편한 것이다.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법만 알면 속히 하고 터디게 하는 것은 각자의 재

주와 연습 여하에 있으니, 숙련하면 편지 한장은 삼시 간에 박아낼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영문처럼 가로만 써 읽지는 것이 아니고, 가로도 쓰고 나려쓰는 혼합체의 글이므로, 매양 한 글자를 만들 때까지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다가, 다음 글자를 쓰려고 할 적에 영어에는 어떤 때 글자의 수효가 우리글보다 더 많아서 보통으로 거진 같은 시간에 같은 의미의 글자를 박일 수 있으니, 박이는 속도는 거의 같다고 하겠다. 이터하므로써 지금까지 만든 모든 기계 중에 가장 정밀하고 완

전한 기계가 되어, 한글을 쓰는 범위의 일이 어디셔나 누구나 사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세계 각국 어느 나라에 비하여서도 손색이 없이 문명한 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문 글자나 가나(假名)와 같은 글자는 좋은 타이프라이터가 되어야 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커히 영문이나 우리 한글처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때, 우리는 세계 자랑거리인 한글을 가졌고, 타이프라이터를 가졌으니, 장래에 우리 문자의 발전은 어디로 보든지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있음)

申明均氏 編

한글 歷代選

定價 一圓 送料 十六錢

內 容

- (一) 訓民正音, 龍飛御天歌
- (二) 月印千江之曲
- (三) 杜詩諺解
- (四) 訓蒙字會
- (五) 松江歌辭
- (六) 四書諺解, 小學諺解
- (七) 創世紀

이 책은 우에 쓴 諸書를 한대 모은것인데, 一이 민음측한 原本을 구하여 全部 一부를 꼭 그대로 翻印한 것이다. 얼마나 稀貴한 珍書인가? 우리 文學과 語學의 研究에 뜻 있고 또 한글의 沿革을 알고 싶고 하는 이는 勿論이요, 其他 누구든지 한번 읽고 永遠히 간수하지 아놓지 못할 國寶이다.

申明均氏 編

周時經先生遺稿

定價 一圓 送料 十六錢

內 容

先生傳記, (朝鮮) 語音學 內 容 朝鮮語文法, 말의 소리 이 책은 上記와 같이 先生의 傳記와 著書를 한대 모은 것이다. 朝鮮語學會로써 綴字法 統一案이 發表되고, 國定教科書로부터 書籍, 新聞, 雜誌할 것 없이 모두 改正綴字를 用한 今일에 우리는 새삼스레 周時經 先生을 感慕하고 紀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한글을 科學的으로 研究하여 바른 方法을 우리에게 指示한 이는 周時經 先生이다. 이 研究 方法을 先生 一生의 業績을 다 잊을 수 있다. 한글을 研究하고서 하는 이로, 또 한글의 참된 意義와 方法을 알려 주는 이는 반듯이 이 책을 備置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松江歌辭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이 책은 宣廟朝 松江 鄭澈의 作으로, 朝鮮 文學의 精華가 될 珍書이다. 누구라도 한번 읽으면 無限한 興味를 느낄 것이다. 朝鮮 文學에 뜻둔이에게 꼭 한번 읽기를 勸한다.

◎ 注文은

朝鮮語學會出版部로

京城花洞一三九番地 振替京城一〇三六番

# 화랑이

—(花郎道遺風)—

## 『화랑』의 語源

朴魯哲

이 적은 지면으로는 화랑도(花郎道)의 윤부(輪郛)만도 제대로 그릴수는 도저히 없으므로, 그 중의 알기 쉬운 것 몇가지를 들어 대강 적어보나 이역 보잘 것이 없게 되었으며, 도리어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겠읍니다.

### (7) 화랑 풍월주의 내력

(花郎 風月主 來歷)

신라 진흥대왕(眞興大王) 시절에 조정에 외교사 두사람을 두어 이를 원화(源花)라 이름한바, 처음에 임금과 신하가 어진 신비 있음을 아지 못하며, 이를 근심하여 무리를 모아 오유(遊遊)하게 하여 그 행실의 의모음을 본 뒤에 이를 뽑아 쓰고케 드디어 미녀(美女) 두사람을 택하니, 그 하나는 남모(南毛)요, 그 하나는 준정(俊貞)이었읍니다.

원화와 화랑 풍월주의 기원에 있어서는 법흥왕설(法興王說) 진흥왕설(眞興王說) 진

지왕설(眞智王說) 세가지가 있으나 여기에는 도저히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양화(兩花) 남모와 준정을 양화라 부른다)가 산곡간에 두두 다니면서 재덕있는 어진 신비를 수문하던중 무리들 모임이 삼백여인이나 된다 합니다.

이는 화랑 풍월주(花郎 風月主)를 설치하기 전에 두었던 원화의 구현제도(求賢制度)이었고, 그 뒤에는 풍월주(風月主)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으니, 이를 후인 풍월도(風月道)라고도 합니다.

진흥왕이 당시 원화 제도를 마련하다가 실패를 본 뒤로는 새로 풍월주란 신사제도(選士制度)를 실시한것입니다.

진자는 귀족 계급의 처녀 중에서 두 사람을 택하여 원화라 한것이요, 후자는 케일골(第一骨) 케이골(第二骨)중에서 도령(童男)을 뽑아 풍월주라 한것입니다. 풍월주의 신사법은 이러합니다.

동남 중에 용모와 거동이

단정한 도령을 뽑아 이를 풍월주라 이름한바, 착하고 어진 신비를 구하여 문도(門徒)를 삼아 충신(忠信)과 효제(孝悌)로써 가르치었다 합니다

그후 풍월주란 이름을 고쳐 화랑(花郎)이라 불렀으니, 이는 마치 관북(關北)말로 『큰아바이』를, 기호(畿湖)말로는 『한아버지』라 부르는 셈이지요. 그 제도는 대개 풍월주와 같이, 풍자 있고 용모 아름다운 귀골 도령을 택하여 화장(化粧)하여서 그들이름을 화랑이라 한바, 그 문도가 구름같이 모여 후인도덕과 의리로써 서로 연마(研磨)하며 후인 풍류, 노래, 춤으로써 서로 기뻐하며 명산대천에 유람하되 어떤 곳이나 이르지 않는대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의 높고그름을 알아, 착하고 어진자를 뽑아 조정에 천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그 제도는 별반 고침이 없으나, 대개 풍류, 노래, 갈춤, 여행, 도덕, 학문의 협동의 힘이었읍니다.

한창 화랑도의 천성기라, 이를 진흥(眞興), 진평(眞平) (효소(孝昭) 시대에는 그 문도가 삼천여명에 이르렀다 하니, 천 역대를 통하면 몇 만명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커 사다함(斯多含) 같은 높은 신비, 관창랑(官昌郎) 같은 날랜 호반, 경문대왕(景文大王) 같은 어진 임금이 다 이에서 나섰으니, 그실 삼국을 통일한것은 전혀 화랑풍류도(花郎風流道)의 힘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한가지 부끄러운것은 당나라(唐)의 힘을 빌려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한것입니다. 고구려 『선비도』(震檀古仙道)는 한, 수, 당(漢隋唐)을 끌어다 켜져를 친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한, 수, 당등을 자기 힘으로 물리치지 않았읍니까.

이것이 대개 고구려 『조의신인』(皁衣仙人)의 무사도와 신라의 국신(國仙) 화랑도와 의 그 흥방정신(興邦精神)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라 화랑도는 고구려 『조의신인』의 『선비도』에서 나온것이지만, 이공계 등이 덧붙여줍니다.

이리하여 신라의 화랑 제도는 (一)원화에서 (二)풍월주로, 풍월주에서 (三)화랑으로, 세차례나 변해왔습니다.

### (7) 현대 화랑의 정석

(歷代 花郎 粧飾)

신라 화랑의 장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분향(粉香)과 미

## 글씨 천구명인(3)

肅宗大王

추수(秋水)는 일색이요, 용가(龍舸)는 범중류(泛中流)라. 소고(簫鼓)일성어, 해만고지수해(解萬古之愁分)로다. 우리도 만민 데리고, 동략대평하리라.

翼宗大王 甲午追崇

사순칭정(四旬稱慶)하오실케 때 맞은 풍년이로. 양맥(兩麥)이 대등하고 백곡이 푸르렀다. 상천이 우순풍조하사, 우리 경사를 도우시다.

춘당대(春塘臺) 바라보니, 사시에 한 빛이라. 옥축이 조광하여, 수역(壽域)에 올라는듯. 만민이 이때를 만나, 늙을 뒤를 모르더라.

어극(御極) 삼십년에, 요천(堯天)인가 순일(舜日)인가. 의외량량하오심을, 뒤항하여 릉할고. 아마도 사시로 비기시면, 봄이신가 하노라.

조종 큰 기업을, 일인 원량(元良)하오시니. 구중에 심취하여, 효양을 받으시니. 어즈버 주문무우(周文武)를 다시 본듯 하여이다.

화기는 만건관이오, 문명(文明)은 구일대(極一代)라. 도무지 헤아리면, 우리 성주교화도다. 아마도 성수무강하오



복(美服)으로 홍장(紅粧)하며 구슬(珠玑)과 비취(翡翠)로 장식한 화관(花冠)을 썼으니, 해동안부(海東樂府)에는 그 장복(章服)에 대하여 칠보주(七寶珠)의 패자와 오화미(五花板)의 채의(綵衣)로써 노래를 읊은 것도 있습니다.

화랑 풍월주의 전신인 원화의 장복에 있어도 대개 화랑과 같이 부향유식(粉香玉飾)으로 홍장하고 암무지개빛 치마(霓裳)와 깃옷(羽衣)을 입었으며, 구슬과 비취 등속으로 꾸민 꽃갓(花冠)을 썼을 것이나 합니다. 신라 화랑의 장식의 고려 초에도 상당히 유행하였으니, 고려 태조 왕건의 즉위할 무렵에도 화랑 풍월도의 유행을 승용하여 마양중동(仲冬)에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양가의 자제 비사람을 뽑아

『양부지개빛』 또는 하의(下衣)와 깃옷(羽衣)을 입혀 궁정에서 노래와 춤을 의인 일

이 있습니다. 그 중의 비사람을 뽑았던 월성사자(月城四子)라 이르는 신라의 국선 화랑의 대표인 영랑(俊永郎)·술랑(述宗郎)·안랑(安詳郎)·남랑(南石行)의 사친인(四仙人)을 존중하므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 뒤 한양조에 와서는 화랑 풍류의 유종(遺種)으로 보

는 광대(廣大)들이 대개 금의(錦衣)에 채화(綵花)와 공작깃(孔雀羽) 단 황초림(黃草笠)을 쓰고 풍류를 울리고 노래 불러 춤추었으니, 이것이 대개 시대를 따라 약간 변천된 신라 화랑 장식의 여운(餘韻)입니다.

이조 때 와서는 창우(倡優)를 일컬어 광대라 한바, 이는 가면(假面)을 쓰고 춤추는 『화랑의』를 이름입니다.

【1】이조말의 화랑이 유숙(李朝末 花郎 遺俗)의 조말의 『화랑의』 유숙에 대하여 그 일면을 들면 대개 이렇습니다. 재인(才人)이 춤을 탈 때 고깔을 쓰고 장삼을 입고 행권을 치고 대천(大扇)을 들고 줄우에서 사사히 내왕하여 누두희(筋斗戲)로써 여무(演舞)하였읍니다.

공작깃을 단 진림(氈笠)·진보(眞服)·인인(人衣)들의 상상이 사사 춤을 추며 또한 편에서는 거문고를 뜯고 귀(笛)를 불며 해금(奚琴)도 울립니다.

그 중의 장고 치는 화랑 이는 어깨를 추켜거리기도 하나니, 지금도 재인의 환희(緬戲)를 간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정월 초승에는 마슬마다 나의 어린 총각의 이마의 연두빛 또는 명주 수건을 동이고 장정의 어깨에

을라사서 소매를 너풀거리고 춤을 추나니, 이를 꽃순다리라 합니다. 혹은 수건을 동이지 않고 고깔을 쓰고 꽃을 스기도 합니다. 그 밖에 화랑이들이 가면을 쓰고 연무(演舞)하는데, 이는 대개 고려의 만석승무(曼碩僧舞)와 같이 팔과 어깨를 뒤흔들고 경충경충 뛰면서 재주를 부립니다.

신라 화랑 풍류도의 유운(遺韻)으로 보는 박수(男巫) 무당(巫女)들이 갈춤으로 처기도장신(祈禱降神)의 의식(儀式)을 취하는 것은 대개 화랑 풍류도의 무검(舞劍)에서 일어나온 것입니다. 그의 관기(官妓)들도 검무를 하듯만 승상한바, 재화에 공작깃 단 진림이나 또는 구슬(珠璣)과 비취 등속으로 장식한 쪽도리를 쓰고 진보·남천의(藍天翼) 등을 입으며, 갈 등의 구슬 단 청룡도(靑龍刀)를 두 손에 쥐고 좌우로 상상의 걸어나와 먼저 상대하여 무릎을 꿇고 앉는 모양을 나타내, 문득 앞으로 내달라 뒤로 물러섰다—다시 돌아와 서나니, 혹은 뺨을 때리고 등을 지기도 하며, 후에는 상수로 용관의 갈을 휘둘러, 서리 같은 갈이 나듯 번득이니, 회중(繪中)의 소재는 너풀거리는 채 춤을 이루웠읍니다.

신라 시대의 화랑 풍류도의 유풍이 고려조(高麗朝)를 거쳐 한양조에 이르기까지 그 바탕이 변하고, 그 빛깔이 밝아지기 비롯하며, 화랑(花郎)의 칭호도 광대, 재인(倡優)를 일컬어 『화랑의』 『화랑』 『화랑』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조 때의 유교사상(儒敎思想)으로 말미암아 창우를 천대하는 명칭이 되고 말았읍니다. 지금도 풍류를 울리며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를 천대하여 『화랑의』라 하며, 또 언어 행동이 호협한 자를 『화랑』이라 하고, 말괄량이 같은 여자를 대개 『화랑』이라 합니다. 제림의 국선화랑의 유종(遺種)이니 그 뒤에 와서 백류의 영아(百流伶兒)가 되면서부터 신라 국풍(國風)의 수관(首冠)인 풍류도의 가무(歌舞)만이 고려조로부터 한양조에 이르러 가지 소위 반족(班族)과 탐관오리배(貪官汚吏輩)의 노리감(翫弄物)이 되기 비롯하여, 고려의 『구사』(驅使) 『망인』(望引)과 이조의 『광대』 『재인』 『박수』(覲) 등의 각가지 빛다름 권명(賤名)을 가지게 된바, 이는 귀족 유교 정신과 모화주의(慕華主義)의 발효(醱酵)된 그 부란(腐爛)한 사대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리 된 것입니다.

심이, 아등방 복이신가 하노라. 공부자 이구산에, 나리시나 경술년을. 동방에 우리 성상, 또 경술년에 탄강이라. 아마다 친지간 대성인은, 이두분 이신가 하노라. 금준에 가득한 술을, 옥잔에 받들고서. 심중에 원하기를, 만수무강하소서. 남산이 이 뜻을 알아, 사시상청하시다. 成忠 百濟 諫官, 不食死 辱노라 叱라수(汨羅水)야, 굴원(屈原)이 어이 죽다더니. 참소에 더러인 몸, 죽어 묻힐 땅이 없어. 창과에 골을 채울 것이, 어복리(魚腹裡)에 장 하나라.

乙巴素 高麗處士, 隱居鴨綠 江山中, 東都劉晏, 慶之爲相, 明政教, 信賞罰, 治國安民 월상국(越相國) 범소백(范小伯)이, 명수공성(名遂功成) 못한 진에. 오호(五湖) 연월이 좋은줄 알긴마는. 서시(西施)를 신노라 하여, 늦어 돌아 가니라. 禹倬 高麗忠烈王 時監察 춘산에는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대 없다. 지근듯 빌 어다가, 마리우에 불리고쳐. 귀밀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 볼가 하노라.

공부자 이구산에, 나리시나 경술년을. 동방에 우리 성상, 또 경술년에 탄강이라. 아마다 친지간 대성인은, 이두분 이신가 하노라. 금준에 가득한 술을, 옥잔에 받들고서. 심중에 원하기를, 만수무강하소서. 남산이 이 뜻을 알아, 사시상청하시다. 成忠 百濟 諫官, 不食死 辱노라 叱라수(汨羅水)야, 굴원(屈原)이 어이 죽다더니. 참소에 더러인 몸, 죽어 묻힐 땅이 없어. 창과에 골을 채울 것이, 어복리(魚腹裡)에 장 하나라.

# 포북 절도 옛이야기

## 중국 사신과

### 수염장이 풍감

옛적에 중국 사신이 우리의 땅에 들어오면 예의지방(禮義之邦)에는 반드시 이인(異人)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번은 사신이 들어오게 되어 평양의 들렸었다. 길가에 어떤 사람 하나가 있는데, 키가 팔구척이요 수염이 길어 허리에까지 이르러 아무리 보아도 예사사람 같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사신은 그 사람을 보고 손을 들며 손가락으로 우를 향하여 동그랗게 그려보이니, 그 도 역시 손을 들어 네모나게 그려서 담하였다. 사신이 또 손가락 세개를 꼽아 보이니, 그는 곧 손가락 다섯

## 옛말 찾기

(二回)龍飛御天歌에서(2)

【기드라다】기다리다(待)。「我后를기드라스하」一〇장

【이보】이로(尼)。「簞食靈漿」一〇장

【이보】一〇장

개를 꼽아 담하였다. 사신이 또 옷자락을 잡아서 들어보이니, 그는 손으로 입을 만져 담하였다.

그후 사신이 서울에 이르러 우리 관반사(館伴使)外國使臣을 接待하는 벼슬(되려) 말하기를

『내가 중원 있을적에 귀국은 예의지방이라 함을 익히 들었더니, 과연 헛말이 아님을 알았소』

관반사가 대답하되 『무엇을 보고 그리 말하오』 하니

『내가 평양을 지나오다가, 길가에 어떤 사람 하나를 보았는데, 일일이 하도 집잔하게 생겼기에, 그의 마음속까지도 필시 남과 다르리라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그려 보이는 뜻인 하늘의 둥글다(天圓)함을 이름인데, 그가 손가

락으로 네모나게 그려 대답하는 뜻은 땅은 모나(地方)한 것이며, 내가 손가락 세개를 꼽는 뜻은 삼장(三綱)을 이름인데, 그가 손가락 다섯개를 꼽는 뜻은 오륜(五倫)도 있다 함이며, 내가 옷자락을 드는 뜻은 옛적에는 의상을 드리워도 친하가 잘 다스리어졌다 함을 이름인데

그가 입을 만지는 뜻은 말세에는 입과 혀로써 친하를 다스리리라 함이니, 시골 길가에 있는 일개 친한 백성도

이러하거든 유식한 사대 부야 더욱 어땡겠소』

관반사가 그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평양부에 공함하여

주각으로 그 사람을 불러 물어서 파우를 각근히 하고 묻기를 『중국 사신이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그릴 때에 어찌하여 네모나게 그렸는가』

『그가 절편의 동그란 놉을 먹고싶다면서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그리기에, 나는 인척미의 모난것이 먹고싶어서 네모나게 그렸지요』

『중국 사신이 손가락 셋을 꼽을 때에는 어찌하여 손가락 다섯을 꼽았는가』

『그가 하루에 밤새까지 먹는다면서 손가락 셋을 꼽기에, 나는 하루에 다섯끼씩 먹고싶어서 손가락 다섯을 꼽았지요』

『중국 사신이 옷자락을 들 때에는 어찌하여 입을 만지었는가』

『그가 근심됨이 임상에 있으면서 옷자락을 들기에, 나는 밤낮 근심되는것이 무엇보다도 먹는데 있으므로 입을 만진것이오』

이 말을 들은 관좌중에는 금시에 웃음판이 벌어졌다. 하하 허허... (於于野談에서)

## 명인일화

### 두형제와 이한민지

윤두수(尹斗壽)의 호는 오음(梧陰)이니, 친조(宣祖)때의

정승입니다. 조물지기 때에 그 아우 근수(根壽)로 더불어 길을 가다가, 한 동치가 길

가운데에 떨어져 있는것을 보고, 말없이 집어 줌으리니, 아우가 필척뒤어 말하되 『길

에 끼친 물건을 주어 무엇 하리오』 형이 대답하기를 『집

이 가난하니 이것을 어머니께 드리겠다』 아우는 『의아

한 물건으로 어찌하겠소』 하고 그

림이 어찌 옳으리오』 하고 그

은을 빼앗아 던지고 버리니, 형은 다만 빙그레 웃을뿐이

었습니다. 이에 아우가 빨리 집에 돌아와, 자꾸 울었습니다.

다.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물으니, 근수가 그 일을 말할의

여쭙습니다. 그러나 두수는 집에 돌아와 부모의 크게 꾸

박하기를 『은을 잃은 사람은 이리와 찾아 가라』 하더니, 얼마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와서 은을 찾아 왔습니다.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량이

이러하니, 뒤의 다 이름난 사람의 되었으며, 근수는 나라의 공이 현인의도 호를 월천(月汀)이라 한다.

【해】 많이(多)。「方國이 해모」나」一장

【근로】 모로(磨)。「虜酋質成」하나로」威化振旅항시」로」一장

【더오다】 더하다(加)。「날로」더욱써」一장

【첫】 첫(初)。「첫나래讒訴를」드러」一장

【보르리】 사림(白)。「말서문」술보르리하디」十三장

【디】 되(尼)。「하디」(말되)」十三장

【외아시다】 재촉하다(催促)。「외아시다」재촉하다」十三장

【놀아】 노래(歌)。「놀아놀보」드리하디」十三장

【보르리】 부르다(唱)。「놀아」드리하디」十三장

普通學校...◇

朝鮮語讀本卷一

◇...指導例

(三) 沈宜麟

一、教材 「十七、丑」

二、教材觀 綴字法 練習 教材로 맨 첫번에 내는 表다. 입때까지 배워치 않는 글자를 가지고, 初聲과 中聲의 關係를 歸納的으로 法則을 세워서 本 表를 構成케 하고, 새로 나오는 글자까지라도 읽을 줄 알게 指導하야 「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字들의 九行을 組織的으로 알려 줄 것이다. 입때까지 배워온 글자를 한번 系統的으로 살펴서 보면,

1、第一課로부터 第七課까지는 單語에다가 글자를 부쳐서, 丑절로 中聲의 觀念을 얻게 하고, 第八課에 이르러서는 單音 中聲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를 總括的으로 整理케 하였다. 卽 「자, 키, 보, 구, 그, 기」들의 글자가 나오게 된 것이 이것이다.

第八課까지의 배운 글자를 가지고 中聲表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既授文字) (單語中聲) (讀法)  
나, 가, 아, 바, 마, 자 .....ㅏ .....아  
버, 어, 머, 커 .....ㅑ .....어  
소, 고, 모, 보 .....ㅓ .....오

무, 두, 루, 우, 구 .....ㅕ .....우  
드, 그 .....ㅗ .....오  
미, 지, 리, 니, 기, 이 .....ㅛ .....이  
2、第十三課中の 「학교, 단져, 오냐」와 第十五課中の 「우유」, 第十六課中の 「비녀」는 複音 中聲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를 總括 整理할 目的으로 내는 것이다.  
(既授文字) (複音中聲) (讀法)  
나 .....ㅏ .....아  
저, 녀 .....ㅑ .....어  
교 .....ㅓ .....오  
유 .....ㅕ .....우

3、第一課로부터 第十四課까지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字 줄 글자를 배워치, 自然的으로 初聲의 觀念을 주게 하고, 다시 이것을 第十五課, 十六課에 이르러서 單語 教材를 提出하야 「ㄱ, ㅋ, ㆁ, ㄷ, ㄸ, ㄴ, ㄹ, ㄷ, ㄹ」의 初聲을 總括的으로 整理 排列하야 노아, 다.  
(既授文字) (初聲) (讀法)  
아어오우유이 .....ㅇ .....이응  
가저고교구기 .....ㄱ .....기역  
나나너녀노누 .....ㄴ .....니은  
다도두드 .....ㄷ .....디은  
라러로루리 .....ㄹ .....리을  
마머모무미 .....ㅁ .....미을  
바버보비 .....ㅂ .....비을  
사시소수시 .....ㅅ .....시을  
자저주지 .....ㅈ .....지을

4、第十五課, 十六課는 第十七課表를 指導함에 가장 必要한 準備教材다. 그러므로 單語에 對한 言語의 內容이

며, 新字를 指導함은 勿論이 어니와, 初聲의 總括的 取扱과, 初聲과 中聲을 構成하야 發音하는 觀念이며, 各字를 初聲과 中音으로 分解하는 法을 充分히 指導하야 할 것이다.  
例를 들면,  
「가」字는 무슨 자와 무슨 자가 합하야 되었니? 기역자와 아자가 합하야 되었습니다.

「나」字는 무슨 자와 무슨 자가 합하야 되었니? 니은자와 어자가 합하야 하야 되었습니다.  
5、既知文字를 가지고 本十七課와 같은 反切表를 構成하야 보면 다음과 같다.  
ㅏㅑㅓㅕㅗㅛㅜㅠㅡ  
ㅇ:아어오우유이  
ㄱ:가오고교구기  
ㄴ:나나너녀노누  
ㄷ:다도두드  
ㄹ:라러로루리  
ㅁ:마머모무미  
ㅂ:바버보비  
ㅅ:사시소수시  
ㅈ:자저주지

6、新出字: 演繹的으로 讀法을 發見 시킬 것이다.  
야여요, 가거카, 뇨뉴느, 다더더료  
뉘디, 라려료류르, 마며묘묘르, 바  
벼보부부브, 사시소스, 자저조조쥬  
즈:.....(四十一字)

7、補充語: 반절, 갓잘, 낫잘:  
三、指導方法大要 (三時間 取扱)  
1、前에 배운 글자를 가지고 反切順으

로 외쳐 노코 읽는 法 練習:.....(教材觀 5 參照)

2、初聲과 中聲으로 分解하는 練習.  
3、初聲과 中聲을 읽는 練習.  
「ㄱ」ㄷㄹㅁㅂㅅㅈ의 初聲  
「ㅏㅑㅓㅕㅗㅛㅜㅠㅡ」의 中聲

4、既知文字로 初聲과 中聲을 構成하 는 練習.  
例, 기역 「ㄱ」字와 아 「ㅏ」를 합하면 무슨 자냐?  
「ㅏ」는 「가」字을 시다:.....

5、初聲과 中聲을 構成하야 新出字를 發見하고 讀法의 練習.  
6、教科書도 反切 各行의 讀法 練習.  
7、反切 各行의 觀念을 주기 위하여 글 자를 指摘하고 몇몇 줄 몇몇 자인지를 問答.

8、反切의 書法練習: 視寫, 聽寫, 暗寫等의 練習.  
9、엇던 音을 불러 주고 書取시키 볼 것.

新刊紹介

辭書出版部 編纂

中等 教育 朝鮮語及漢文讀本解釋

卷一, 卷二, 定價 各三十錢

女子高等朝鮮語讀本解釋

卷一, 卷二, 定價 各三十錢

# 중 등 본말선조

이 잡 길  
培 鉉 崔

## 대중말 (標準語)

(모도풀이, 이음)

五、한 나라말 가운데에 그 대  
중(標準)이 될 만하다고 잡은 말  
을 대중말(標準語)이라 하며, 그  
령지 못하다고 잡은 말을 사토리  
라 한다.

### (1) 대중말(標準語)이 생기는 길

본래 말이란 것은 그 自然의 발달에  
따르지만 할것같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는 땅——시골(地方)의 자  
연적 형세와 관계로 말미암아 곳곳  
이 서로 다르게 갈라지는 기운성(傾  
向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가 열  
리고 교통이 발달되고 민족이 통일  
되고 나라가 세워짐을 따라 여러  
가지로 그 자연의 형세를 재어하게  
된다. 뿐 아니라 곧 여러 곳의 사람  
들이 케가끔 다른 말을 쓰는 것보  
다는 다 같은 말을 쓰게 피차 편리하  
겠다는 요구(要求)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나라안에서 문화와 교  
통의 중심이 되는 시골(地方)의 말  
이 차차 여러가지의 시골말(方言)에

대하여 두두말(共通語)이 됨에 이르  
는 기운성(傾向)을 가짐도 또한 사  
실이다.

그러한데 문화적으로 상당한 발달  
을 이룬 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연적  
경향(傾向)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  
아가 계획적(計劃的)으로 그 나라안  
의 여러가지의 시골말(方言)을 하나  
만들어서(統一하여서), 그것으로써 그  
국민을 가르쳐서, 그 민족의 통일을  
준거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적극적  
으로 높이려고 한다. 이리하여 그 하  
나만들어진 말은 다른 여러가지의 시  
골말(方言)에 대하여 바른 대중(標準)  
이 되나니, 이것이 곧 그 나라의 대  
중말(標準語)이란 것이 된다.

### (2) 대중말(標準語)을 잡는(定하 는) 방법

대중말을 잡음에는 대체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는 그 나  
라안의 여러가지의 시골말(方言)을 최  
다 조사하여서,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을 모아서 한 대중말(標準語)을 만  
드는 방법이나, 이것은 가장 이상적  
(理想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  
게 해서 만들어낸 말은 넘어도 인  
공적(人工的)이다. 낱말(單語)이나 말  
법(語法)이나 그 모양으로 여러 시  
골말에서 가리고 합하고하기가 사실  
로 어렵울뿐 아니라, 시령 쉽게 된  
다 하더라도 실행이 여간 어렵지 아  
니할 것이다. 거의 할수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하여 둘째 방법은 실재적 방

법(實際的 方法)이라 할 만 한 것이다.  
이것은 온 나라안의 가장 유력한 한  
시골말(方言)을 뽑아서, 그것을 잘 고  
두고 바꾸잡아서, 그것을 기초(基礎)  
로 하여서, 대중말을 만드는 것이다.

첫째 방법은 옛날 그리스어에서 이  
테비 시골말(方言)과 토리아 시골말  
에서 코이네(Koine)라는 대중말을 지  
을적에 쓴 일이 있었을 따름이요,  
현대의 모든 나라들은 대개는 둘째  
방법을 취서 그 대중말을 만드나니, 영  
국에서는 런던 말, 프랑스에서는 바  
리 말이 그 대중말의 기초가 되었  
음은 다 그 보기가니라. 그러면 어  
째서 이 이러한 말들이 그 나라의  
대중말의 기초로 뽑히고, 다른 시골  
말들은 뽑히지 못하였나 하면 그것  
은 이러한 까닭이 있다. 무릇 한 나  
라의 대중말로 뽑힐만한 말은 (1)  
온 나라의 시골말가운데 가장 널리  
들리는 것, (2) 온 나라의 시골말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 (3) 문학  
상(文學上)의 말로 가장 잘 쓰히는  
것, 이 세가지의 자격(資格, 條件)을  
갖춘 것이라야만 한다. 이 세가지의 자  
격을 갖춘 시골말이라야 능히 다른  
모든 시골말보다 훌륭한 지위(地位,  
자리)를 차지하여서 다른 시골말을 능  
러 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각 나  
라의 시골의 말은 대개 이러한 자  
격을 갖춘 말이다. 왜그러나 하면서  
올는 그 나라의 정치(政治), 문화(文化)  
교통(交通)의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 (3) 대중말의 참뜻

이와 같이 오  
늘날 대중말이란 것의 근본을 캐어보  
면, 흔히든 그 나라말가운데의 한 시  
골말이던 것이 뽑혀서, 사람의 의식  
적(意識的)의 갈기(琢磨) 당기(修練)  
바루잡기(修正) 짐기(補足)를 입어서  
완전한 것이 된 전혀 이상적(理想的)의  
말이다. 그것이 비록 어떠한 한 시  
골말을 기초로 삼아서 되었다 하더  
라도, 결코 어떠한 시골말 그대로를  
취한 것은 아니다. 첫째 한 곳의 말  
이라고도 그 곳의 사람 특히 계급(階  
級)의 다름을 따라서 말도 또한 다  
름을 면치지 못한다. 귀족계급에는 귀  
족의 말씨가 있고, 중류계급에는 중  
류계급의 말씨가 있고, 하류계급에는  
하류계급의 말씨가 있는 것이다. 그런  
데 여러 사람에게 두루 쓰히기를 피  
하는 대중말은 넘어 오로 치우쳐도  
안될 것이요 넘어 알로 치우쳐도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중류계급의 말  
이 그 시골말가운데에서도 특히 대  
중말의 기초로 뽑히게 되는 것이 예  
사이다. 우리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에서 만들어 낸 「한글 맞춤법 통일  
안」에 「표준말(대중말)은 대체로 오  
늘날 중류사회(中流社會)에서 쓰는 서  
을말로 한다」고 규정해놓았음도 이  
러한 근거(根據)에서 한 것이다.  
다시 생각하건대, 중류사회의 시골  
말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대로 곧 채

용할수는 없는것이다. 그 소리내기(發音)와 말수잡기(語彙決定)와 말법에 대하여 자세한 조사를 하고 정확한 연구를 더하여, 틀린것은 바로잡고, 여러가지로 흐트러진것은 한가지로 잡고, 짝을것은 짝고 기을것은 기워치, 그것에 인위적 개량(人爲的 改良)을 더하여야만 한다.

이제 그 다듬질의 원칙(原則)이 될 만한것을 들건대,

- 1, 변화(變化)는 다 개선(改善)이라야 한다.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아무이익없는것은 물리쳐야 한다.
- 2, 가장 빨리 이해(理解)되며, 또 말하기에도 가장 간편한것이 가장 좋은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 혼동되기 쉽거나, 따라 이해되기 쉽거나, 깨치기가 어렵거나 말하기에 불편한것은 버려야 한다.
- 3, 말은 아름다운것이러야 한다. 품위(品位)가 없고 나쁜 연상(聯想)을 따르게 하는것은 버려야 한다. 말은 문학의 거리(材料)인즉 아름다움이란것이 그 정리의 상의 한 본이 되는것이다.
- 4, 될수있는데로 널리 쓰이는 말을 가리라.
- 5, 그 말의 역사적 인연(歷史的 因緣)을 참작함이 또한 필요하다. 그리하여 같은값이면 역사적인 면이 깊은 말을 취하. 그러나 라말의 순진한(純粹性)을 보존하기를 피할것이다.

이와 같은 의식적인 다듬질을 거쳐서 비로소 대중말(標準語)이 성립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대중말(標準語)이란것은 어느 시골말(方言)의 사실(事實)의 모듬은 아니요, 사실의 말을 이상적으로(理想的)으로 같고 단고 짝고 짐고 하여 다듬은것이다. 그때서 이렇게 말한 다하기보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대중(標準)을 세운것이다. 그러므로 대중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온 나라말의 대중을 삼는데에서 성립하는것이요, 다만 자연적으로, 사실적으로, 무의식적(無意識的)으로 성립하는것은 아니다. 이른바(所謂) 두두말(共通語)이란것은 그렇게 생기는것이겠지마는, 대중말은 반드시 사람의 이상적 다듬질(理想的彫琢)을 말미암아서 생기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여 성립한 대중말이다. 여러 여러가지의 시골말에 대하여 우월한 권위(權威)를 가지고 그 여러가지의 시골말을 다스려가는 말이 되는것이다.

(4) 대중말의 동요성(動搖性)

한 나라의 대중말은 반드시 하나이라만 된다는것은 아니다. 옛날 그리스 아에서 아티카(Atica)와 라코니아(Laconia)와 의 두가지의 대중말을 들었으며, 오늘날에도 백두기(白耳義)에 후라민말과 프링스말이 함께 쓰이고, 스위스(瑞西)에는 또 취말과 프링스말이 함께 쓰임과 같은 두가지 넘어의 대중말이 한 나라안에 행하는 보기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는 다 나라생김의 사

척(事情)과 인종혼합(人種混合)의 결과(結果)와 정치상의 관계 같은것이 각각 그렇게 안될수 없는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이요, 결코 일부러 그러되기를 바라서 그리 만든것은 아니다. 될수만 있으면 한 나라의 대중말은 하나로 함이 좋은것이다.

또 대중말은 다른 여러가지의 시골말에 대하여 그바름의 대중(標準)이 되는 권위(權威)를 가지는것이치마는, 한번 정한 대중말은 영구불변의 고정성(固定性)을 가지는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은 보통의 날로 쓰이는 말따위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것인즉, 보통의 말에사와 같은 급속한 변화를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영구히 변화를받지 아니할수 없었다. 시대가 바뀌고 형편이 달라짐을 따라, 그런 그대로는 대중말의 자리를 정질수 없을만큼 그 자격(資格)이 빠진(缺陷)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어떤 시기(時期)에는 그것을 고쳐야 함에 이른 다. 곧 보통의 말의 경우에서는 그 변화가 대개는 무의식적(無意識的)이로되 대중말의 경우에는는 원래 그 제정(制定)이 의식적(意識的)임과 같이 그 변화도 또한 의식적이다.

(5) 시골말(方言)과 사토리

방언(方言)은 곧 「地方言」의 뜻이다. 지방(地方)을 만약 「시골」이라 할수 있다면 방언(方言)은 「시골말」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방언은 흔히 그 나라의 서울말에 대하여 지방언(地方言)의 뜻으로 해석하는 일이 있지만, 이는 그들 말이다. 한 나라의 서울(首府)의 말도 또

한 그 지방(시골)의 말이니까,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한 방언이 되는것이다. 서울말이라고 해서 의례이 곧 다른 시골말보다 낫다는 이치는 없는것이다. 서울말도 다른 시골말과 마찬가지로 좋은 점도 있으며 나쁜 점도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그 서울말을 대중말의 기초로 삼을적에도 여러가지의 다듬질을 받아야 함은 이때문이다.

또 흔히 여러 곳의 말가운데 특히 이상스러운 점만을 가리켜서 방언이라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일리가 없지 아니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역시 바른 해석은 되지 못한다. 청당하게 해석하면 방언(시골말)이란것은 그 지방(시골)의 어떠한 남다른 말치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시골(地方)의 말치 전체를 가리켜 이름이다.

그러하고 대중말에 맞지 아니하는 다름 말치를 사토리라 함(방언이라 하지 않고)이 옳을것이다. 대중말(標準語)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세운 대중언어, 이 대중에 어그러지는 말은 우리가 가치적(價值的)으로 보아 사토리(詭言)라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토리란 결코 서울밖의 지방(시골)의 말치 몇하는것이 아니라, 서울말이고 다른 지방(시골)말이고 간에 대중말에 틀린 말은 다 마찬가지로 사토리라 할것이다. 「서울의 사토리」라 하면, 다만 서울이기 때문의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이한 느낌을 줄는지 모르겠지마는, 청당하게 학문적으로 해석한다면 사토리는 서울말에도 반드시 있을것이다.

# 한글신문

## 조선어학회 월례회

### 철자사전 위원 뽑아

우리 조선어학회의 월례회는 지난 五月 十一日 하오 四시에 수표청 四十二번지 본회 회관에서 열고 『影母考』란 면제로 김신기씨의 강연이 있은후, 간사장 이희승씨 사회로 철자사전을 하두바베 만들어 보기 위하여 권영우원으로부터 김윤경 이극로 이윤재 세 분을 뽑아 다시 철자사전위원을 뽑으니 다음의 아홉분이었다.

- 申明均, 張志暎, 崔鉉培
- 金允經, 李秉岐, 李允宰
- 李熙昇, 李克魯, 金炳濟

## 경서의 권역과 기

### 김신기씨 수필의

필리 프랑쓰 나라 와리를 향하고 연구의 길에 떠나가는 우리의 회원 김신기씨의 수필언어를 지난 四月 六일 하오 四시에 창문밖 소림사(小林寺)에서 열었다.

## 한글 강습의 성향

### 조선어학회에서

경성 수송동(壽松洞) 四十六

번지에 있는 조선연무관(朝鮮研武館) 주최와 동아일보사 학예부 후원으로 오월 십사일부터 등 이십일까지 매일 두시간(오후 칠시로 구시까지) 연무관 도장에서 한글 강습회를 열었는데, 강사는 이극로(李克魯) 이희승(李熙昇) 이병기(李秉岐) 이윤재(李允宰) 케시며, 강습원은 팔십여명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 문인들의 작업일

우리회에서 발표한 통일안

## 대중이 읽을

### 순한글로 쓴 신문

조선문으로 쓰는 신문의 삼사종류가 있기는 하나 모두 한문과 어려운 문체로 써서 지식계급에만 한하여 보게 할 수 있고, 일반 대중 더욱이 노동자와 부녀들은 신문을 볼 수 없으며, 보기는 보아도 뜻을 잘 알지 못하여, 세계의 형편과 여러가지 지식을 구할 곳이 없게 되므로 뜻 있는이의 매양 개탄하는바 이 러니, 이번에 유진래(俞鎭泰) 이극로(李克魯) 김철설(金鼎萬)申明均(申明均)이중건(李

이 사회 각방면에 넓이 씨 어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거니와 이미 세상에 나온 이광수 이은상 양주동씨 밖에도 여러 문인들의 소설 시집 등요 등화 논문집들이 신철자법에 의하여 출판되었으 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대준(李泰俊)씨의 단편소설집 『달밤』과 김동인(金東仁)씨의 소설 『감저』와 김억(金億)씨의 시집 『망우초』(忘憂草) 등의 걸작품들이 모두 통일안의 의하여 급년 출현안으로 세상에 나오리라고 한다.

重乾)이희석(李喜錫) 여러분의 발기로 「외설시보사」를 창립하고, 유진래씨를 사장으로 발행소는 경성부 안국동(安國洞) 일백 오십 삼번지에 두고, 세계 사정과의 시(時事)와 가정 및 농촌의 유익한 기사를 순 한글로 아주 알 아보기 쉽게 써서 매주일 한 번씩 발행하기로 하여, 지난 이십 오일에 창간호가 났는데, 조선 최근에는 순 한글로 하는 신문의 이것이 커 음인것만큼 우리 사회의 크게 충동을 주고 있다.

## 부질없는 수작

이공중(李肯鍾)씨는 이설파(異說派)의 잡지 「正音」 제이호 첫머리에 「文字와 文化」란 제목으로 몇줄 쓴것이 있다. 그 글의 제목이 팬창으로 한번 읽어보았더니, 매우 좋은 뜻이다. 더욱이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인쇄하기 쉬운 문자를 가진 민족은 지식의 보급이 빠르고 문화의 향상이 속할것이다」라 함에 우리는 많이 공명(共鳴)된다. 아니 우리는 일즉 이것을 부르짖었으며, 지금도 이것을 열렬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씨의 글 가운데 좀 곡해(曲解)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것을 한번 질정(質正)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씨는 「輓近에 이르러서는 우리글이나마 천만뜻밖의 支離滅裂을 당하게 되니...」라 하였다. 이것은 우리글의 역사적 변천(歷史的 變遷)과 현재의 상태를 도무지 살피지 아니하는 말이다. 우리글이 이왕에는 꼭 통일한 철자법을 써서 조금도 지리멸렬한 일이 없었다는 말인가? 이왕에는 우리글을 많이 쓰지는 아니 하였으나, 그중에도 경서언해(經書諺解)에 쓴것과 이약책(小說)에 쓴것이 같지 아니하고, 궁중에서 쓰는 궁체 글씨와 민간에서 쓰는 속용 자체가 같이 아니하며, 민간에서 쓰는 것으로도 사람마다 달리 써서 백천가지로 헤일 수 있었다. 씨는 어쩌하여 이것을 단언하는가? 또 천만뜻밖 에 지리멸렬을 당하게 된다 하

지다는, 우리글이 지리멸렬하여온 지가 많서 수백년이다. 그리고 현 금에는 더욱 혼란하여, 각 사람 각체로 써서 한사람의 쓴것으로도 어제 쓴것과 오늘 쓴것이 다르고, 같은 글 가운데에도 우옛 줄과 아랫줄에 쓴것이 다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다만 우리글에 전체적으로 표준될 철자법의 통일안(統一案)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통일안이 났으니, 이로부터 전 민족이 일치하여 그대로 실행하기에 주 려하면 오래지 아니하여 지리멸렬한 상태를 면할것이 아닌가. 씨는 또 「전에는 하루 저녁만 배우면 능히 깨달을수 있던것이 이제 는 中學校에서 一年 二年을 배워도 오히려 알기 어려워서 眩惑을 느끼고, 知識階級의 人士들도 外國의 文法이나 記寫法에 대하여는 도리어 能通하여 의심없이 使用하나, 所謂 한글式 記寫를 쓸 때에는 뜻이 어려운대 가 많고 疑心나는 점이 적지 아니하여...」라 하였으니, 이는 꼭 해중에도 너무 곡해이다. 전에 하루 저녁으로써 깨달을수 있는 것이면 지금이라고 못할것이야 있겠는가. 그러나 글이란것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물론하고 다 국 어교육이 있어, 가르쳐서 되는 법 이어늘 어찌하여 하루 저녁에 배운것으로써 넘겨하다 하는가. 중 학교에서 일년 이년을 배워도 알기 어려워서 현혹을 느낀다 하 지마는, 씨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여 보았는가. 나는 지금도 고 등보통학교에서 실제 경험하고 있다. 한글의 철자법을 한번만 설명하면, 아무리 하급 학생이라도 곧 알게 된다. 그러나 잘 실행이 안되는것은 무슨 까닭인가. 학생들의 읽는 교과서가 조선어

하 의 소 식

미국 신문에서  
신철자 인용

미국의 와 앵글리시 가 능 신  
문 「슈카터·웨이퍼」가 첫 수  
그 신문의 아래의 단어 二  
十 개와 관용어 단면 二  
두개의 영어 다출변 간의화  
(簡易化)한것을 사그로써 발  
표하였다.

(英) (韓)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alog Analogue  
Cancel d Canceled

Catalog	Catalogue
Controlled	Controlled
Controler	Controller
Cotillon	Cotillon
Skillful	Skillful
Decalog	Decalogue
Definity	Definitely
Demagog	Demagogue
Dialog	Dialogue
Extolud	Extolled
Factom	Phantom
Fulfilment	Fulfillment
Harken	Hearken
Hooky	Hokey
Ind.finity	Indefinitely

문답  
과 대답

【문답】 제 二六항 의

『이루다』 발(田)을 기간(起  
勢)하는 뜻으로 쓸 때는 『일  
하다』로 쓸까요? 『일하다』  
로 쓰면 제 二七항 및 제  
二八항도 모순되고 『이루다』  
로 쓰면 제 九항의 모순될  
듯한데요? 또 『일하다』 『일  
하다』 『일하다』 『일하다』 『일  
하다』로 쓸까요?  
(정인승)

【문답】 『일하다』에서 일것  
이면 『일하다』라 하겠지마구  
만 많은 『일하다』(成)와 구  
별것입니다. 『일하다』 『일

Monolog	Monologue
Patroled	Patrolled
Pedagog	Pedagogue
Prolog	Prologue
Tranquility	Tranquillity

수업내 적인 일

미국 로스엔젤스에 있는 미  
국점자협회(美國點字協會)에서  
가 불평한 소견들을 위하여  
점자 잡지를 발행하게 되  
었기에, 벌써 창간호가 나왔  
다 한다. 잡지 이름이 「뉴  
점」(새 점)이라 한다. 한  
다.

의이다』로 쓸이 좋겠습니다.  
이 말과 같이 二七항 二三  
항 九항의 각항의 의지하  
침범의 달다질만한 경유에  
소리보다도 범에 맞는 편을  
적용함이다 보편적(普遍的)  
이니까, 그편을 적용함이 좋  
다 하겠습니까. 즉 九항을 적  
용함이 좋다고 합니다.

【문답】

(一) 비(一) 『반  
나다』 『반나다』가 무슨 품  
사의 합성인지요. 뜻이 두  
가지지요. (정인승)

【문답】 『반나다』가 『병자  
의 병어제어법』만은 『반』의  
아니다』와 같은데요. (정인승)  
【문답】 제 二四항 二四

【문답】

문장 부호는 그  
원처(原處) 그 부호 쓰느냐  
라)에서 쓰는 뜻대로 쓰려  
면 쓰자고 할뿐이요, 판 외  
야 된다고 규정함인 아닙니다  
다. : 와 ; 의 쓰는 법은 『조  
점』과 『문법』의 하나다.  
지나고 문법규정의 하나다.  
『어』아니다. 사람의 한 일  
이 아니다』같이 쓰며 『어』  
『어』중에서 쓰지 않습니다.  
(정인승)

【문답】 문장 부호는 그  
원처(原處) 그 부호 쓰느냐  
라)에서 쓰는 뜻대로 쓰려  
면 쓰자고 할뿐이요, 판 외  
야 된다고 규정함인 아닙니다  
다. : 와 ; 의 쓰는 법은 『조  
점』과 『문법』의 하나다.  
지나고 문법규정의 하나다.  
『어』아니다. 사람의 한 일  
이 아니다』같이 쓰며 『어』  
『어』중에서 쓰지 않습니다.  
(정인승)

두편을 제한 이외에는 조선말로  
된것이 하나도 없고, 한주일 단  
한시간씩 배우는 조선어독본까지  
도 철자법이 불일치한다. (지금  
일이하면 교과서는 잘 되었지만  
구) 그러고 신문이나 잡지나 기  
타 사회에서 나날이 배포되는 일  
반 간행물이 모두 가진각색의 글  
을 써서 혼란이 막심한지라. 이  
러한 현상 아래에서 비단 학생  
뿐 아니라 원천하 사람으로 현  
혹(眩惑)을 느끼지 아니할 자  
가 있을것이나. 그리고 지식계급  
의 사람들이 외국 문법에나 기  
사업에는 능숙하여 의심없이 사  
용하는것이 더욱 무슨 말인가?  
Grmmar가 뭐지 Spelling이 뭐지  
Ponon(文典)이라든지 카나즈카  
비(假名遣)이라든지 생(生而知之)로  
우지 않고 생(生而知之)로  
아는 무슨 신동술이 있는가? 써  
는 평생에 그런것을 배워보지 못  
하였나? 그것을 배워서 능통하  
기까지에 얼마나한 시일과 노력  
이 드는것임을 모르는구나! 한  
글의 문법이라든지 철자법이라든  
지 이것도 다같이 글인바에 배  
우지 아니하고 능통할리가 없다.  
세상에 아무리 쉽고 쉬운것이  
도 처음 대할 때에는 자연 곳  
곳이 어려운대기 없을수 없고 의  
심나는 점도 적지 아니할수가 없  
는것이다. 이것이 어찌 한글 기  
사(記寫)에만 있는 일이라? 써  
가 쓴 그 글 가운데에도 내가  
보기에선 곳곳이 어려운대와  
심나는 점이 많다. 곧

적다 아니한 (적지 아니한)  
되야 쓰니 (되었으니)  
군계지역  
뜰밭에 (뜰밭에)  
갈히 (갈이)  
앞선다

【문답】 문장 부호는 그  
원처(原處) 그 부호 쓰느냐  
라)에서 쓰는 뜻대로 쓰려  
면 쓰자고 할뿐이요, 판 외  
야 된다고 규정함인 아닙니다  
다. : 와 ; 의 쓰는 법은 『조  
점』과 『문법』의 하나다.  
지나고 문법규정의 하나다.  
『어』아니다. 사람의 한 일  
이 아니다』같이 쓰며 『어』  
『어』중에서 쓰지 않습니다.  
(정인승)

【문답】 『일하다』에서 일것  
이면 『일하다』라 하겠지마구  
만 많은 『일하다』(成)와 구  
별것입니다. 『일하다』 『일

【문답】 문장 부호는 그  
원처(原處) 그 부호 쓰느냐  
라)에서 쓰는 뜻대로 쓰려  
면 쓰자고 할뿐이요, 판 외  
야 된다고 규정함인 아닙니다  
다. : 와 ; 의 쓰는 법은 『조  
점』과 『문법』의 하나다.  
지나고 문법규정의 하나다.  
『어』아니다. 사람의 한 일  
이 아니다』같이 쓰며 『어』  
『어』중에서 쓰지 않습니다.  
(정인승)

【문답】 문장 부호는 그  
원처(原處) 그 부호 쓰느냐  
라)에서 쓰는 뜻대로 쓰려  
면 쓰자고 할뿐이요, 판 외  
야 된다고 규정함인 아닙니다  
다. : 와 ; 의 쓰는 법은 『조  
점』과 『문법』의 하나다.  
지나고 문법규정의 하나다.  
『어』아니다. 사람의 한 일  
이 아니다』같이 쓰며 『어』  
『어』중에서 쓰지 않습니다.  
(정인승)

【문답】 문장 부호는 그  
원처(原處) 그 부호 쓰느냐  
라)에서 쓰는 뜻대로 쓰려  
면 쓰자고 할뿐이요, 판 외  
야 된다고 규정함인 아닙니다  
다. : 와 ; 의 쓰는 법은 『조  
점』과 『문법』의 하나다.  
지나고 문법규정의 하나다.  
『어』아니다. 사람의 한 일  
이 아니다』같이 쓰며 『어』  
『어』중에서 쓰지 않습니다.  
(정인승)

新刊紹介

新撰童話集

定價 二十五錢  
送料 四錢

이 책은 北米合衆國 宗教教育界 巨星 람손博士의 講話인 데, 童話의 定義, 童話의 價値, 童話의 種類, 童話의 撰擇, 童話의 分解, 童話의 準備, 童話의 態度, 童話法, 童話 作法, 童話의 修正法等 十餘項을 平易하게 叙述하였으며, 끝으로 한글 綴字法을 알기 쉬운 解説을 붙여어 썼다. 그리고 全文을 한글 출판법 用일안대로 쓴 것은 出版界에서 이것이 처음이다.

朝鮮少年少女

雜誌의 權威

月刊 아이생활

一部十錢 一年一圓

京城鍾路二丁目九一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週刊 서울시보

純朝鮮文의

大衆의 新聞

京城安國洞一五三

徐蔚時報社

振替京城一二一七八番

青年常識叢書

朝鮮歷史	全	二十錢
西洋歷史	全	二十錢
世界地理	全	二十錢
政治篇	全	二十錢
經濟篇	全	二十錢
法律篇	全	二十錢
哲學概論	全	二十錢
社會學	全	二十錢
人體生理	全	二十錢
家庭衛生	全	二十錢
新體書翰文	全	二十錢
朝鮮語文法	全	二十錢
物理學	全	二十錢
化學	全	二十錢
商業	全	二十錢

農村夜學教科書

勞働讀本	一	十五錢
勞働讀本	二	十五錢
勞働讀本	三	二十錢
勞働算術	上	十五錢
勞働算術	下	十五錢
漢字初步	全	二十錢
勞働理科	全	二十錢
農業初步	全	二十錢
勞働書翰	全	十五錢

注文은 朝鮮語學會出版部로

投稿歡迎

本誌는 讀者 여러분의 原稿를 기다립니다. 여러 本의 귀중한 의견을 이 紙面을 통하여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一、研究論文。 한글 연구에 관한 意見 發表。

一、感想文。 本誌나, 혹은 書籍을 읽고 感想된 것, 通信文。 한글에 관한 記事 등으로 本社나 知友에게 편지하는 것。

一、研究資料。 地方 사투리, 傳來 童話, 民謠, 傳說, 古談 等 其他。

한글마춤법(한글)의 特輯

(한글 第一卷 第十號 特刊) 定價 十五錢

朝鮮語學會에서 往年 한글 맞춤법 用일안을 制定 發表한 것은 朝鮮 文化史上에 新記錄을 지은 것이다. 이 特刊 事業을 永代에 保存하기 위하여, 이 案을 制定한 經過 事況과 統一案 全文과 이를 發表할 때의 記事 및 當時 一般 輿論을 蒐集하여 特輯을 發行한 것이니, 이것이 朝鮮語學史上 가장 貴重한 文獻이 될 것이다. 한글 맞춤법 用일안이 어떻게 생겼으며 全社會에 어떠한 衝動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려는 이는 꼭 한번 보기를 바란다.

社告

우리들의 統一과 普及를爲한 한글 運動에 參加한 同志들을 다음과 같이 紹介하오니, 地方에 계시는 讀者들은 그렇기 아시을소치.

- ◇光州支社
  - 一、區域 光州 一圓
  - 一、位置 光州邑楊林町
  - 一、支社長 崔 奇 一
- ◇高敞支社
  - 一、區域 高敞郡 一圓
  - 一、位置 高敞邑內
  - 一、支社長 陳 春海
- ◇東京支社
  - 一、區域 東京市 一圓
  - 一、位置 東京市品川區大井水 神町二〇七九
  - 一、支社長 姜 鎬 哲
- ◇載寧支社
  - 一、區域 載寧郡 一圓
  - 一、位置 載寧邑內日新里
  - 一、支社長 朴 周 陽
- ◇統營支社
  - 一、區域 慶南統營郡 一圓
  - 一、位置 統營邑敷島町
  - 一、支社長 鄭 德 寶
- ◇七坪支社
  - 一、區域 七坪市附近
  - 一、位置 平北七坪市
  - 一、支社長 金 成 煥

支社에 對하여

「한글」은 오로지 우리들 統一 및 普及를 天職으로 삼는다. 그런 同時에 天下에 同志를 求한다. 우리들 統一 및 普及를爲하여 誠이 있고 熱이 있는이면 누구든지 다 우리의 同志가 될수 있다. 主要地마다 支社를 두어 同志와 서로 協力하고저 한다. 支社 經營에는 別般 形式的 手續이 랄 것이 없고, 다만 事業에 協力할 決心만 있으면 그만이다. 이에 뜻이 있는 이는 한번 書面으로 문기를 바란다.

價 定	
一部	五錢
六個月	三十錢
一箇年	五十五錢

代金은 받듯이 先金을 要함.

昭和九年六月五日 印刷  
昭和九年六月七日 發行

編輯兼 發行인 李 允 宰  
京城府花洞一二九番地

印刷人 金 鎮 浩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花洞一二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京城一〇三六番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